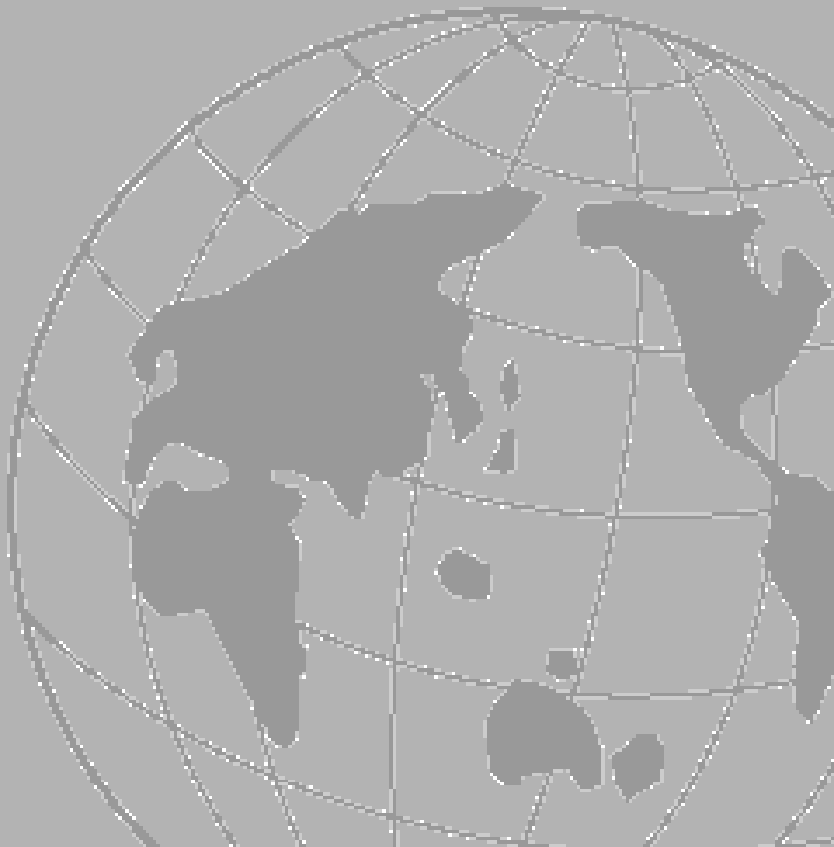


권두언 / 특별기고

2011년 한국 외교정책 방향(외교통상부장관)
시련(試鍊)을 딛고 쇄신(刷新)으로



2011년 한국 외교정책 방향**

김 성 환*

I. 2011년 외교 환경 전망

올해의 외교 환경에 대해 전망해 보면, 우선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 및 북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앞두고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 및 경제적 실리 추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의 탓으로 돌리면서 외부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외적 긴장조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해나가는 양면전략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은 중국의 국력신장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속에서 양국 간 협력도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신흥국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G20의 제도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G20, G8 등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간의 경쟁과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테러·비확산 등 범세계적 이슈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경제는 올해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성장 격차,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 원유·식량과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앙등 등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의 정세불안은 유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고, 중동지역 민주화

* 외교통상부장관

** 본고는 당 협회 신년회(1.5) 초청 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정리한 것임.

라는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앞으로 동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II. 2011년 외교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인 2011년, 우리는 지금까지 거둔 외교적 성과를 더욱 심화하도록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도전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 대통령의 비전인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향한 외교적 발걸음을 한층 더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 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 그리고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을 3대 핵심추진과제로 삼아, 총력·복합 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전략 패러다임을 통해 이를 견실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1.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 외교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인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 외교’를 위하여 우선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정책 공조도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외교력이 집중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을 안보 외교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측에 전해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중 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연구·교류 총괄 조직을 설립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 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작년 9월 우리 정상이 야로슬라블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11월에는 G20 정상회의 계기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민 방문하는 등 양국 정상의 관계는 한층 돈독해졌다. 올해에도 정상간 소통을 강화하

는 한편, 철도(물류)·에너지·녹색(농업) 등 3대 신(新)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일본과는 올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도서반환 등 과거사 현안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정책 공조도 긴밀히 유지할 것이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남아 있으나,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협력도 올해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16일 서명된 설립 협정에 따라 금년내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구체적인 협력 실천과제를 제시한 'VISION 2020'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관련국들과의 협력 하에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해 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었으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던 우라

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나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둘 것이다. 아울러,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두 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을 택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교적인 역량을 집중해 가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남북대화를 비롯한 6자회담의 올바른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정부는 '그랜드 바젠' 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이루고, 대북 안전보장, 경제·에너지 지원 등 5자의 상응조치를 단일 합의로 타결하는 포괄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2.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

두 번째 핵심추진 과제인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지 4년째 되는 올해에 이를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으며,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G20 서울 정상회의 후속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개발 의제가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으로 채택되는 결실을 거둔 바, 개발을 비롯하여 무역 및 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포스트 교토 체제’를 대비해 나가는 노력도 글로벌 코리아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화 과정을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칭 ‘녹색산업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신흥시장에 대한 외교력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아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정상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지역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외교 활동도 강화해 가고자 한다. 신흥시장 국가들과 단순히 자원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개발 경험을 나누어주는 ‘윈윈 외교’를 펼칠 것이다.

한편, 금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향후 중동 국가들이 자국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산업다각화 등 경제적 변화를 시도할 경우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중동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통상 외교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한·미 및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미국과 EU와의 FTA를 발효시킬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60%, 세계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그밖에도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 여건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협상중인 자원부국·신흥시장국과의 FTA도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국격 제고를 위한 글로벌 외교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 중심으로 ODA 사업을 재정비 및 강화하고, 국제 선진원조 규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ODA 추진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UN PKO 파병 확대, 아프간 PRT 활동, 소말리아 해적 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3.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

세 번째 핵심추진 과제인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은 작년 특채 파동을 계기로 내부를 정비하고, 나아가 선진 외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14일 전 직원의 총의를 모은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경쟁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관장 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경쟁 요소를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공사직위 개방을 추진하는 등 우리 조직의 개방성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외교인력의 배치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변화하는 외교업무수요를 반영하여, 선진국 소재 공관 인력 감원 및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국 소재 공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1세기를 이끌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외교원의 설립 준비를 올해 내에 완료하는 한편, 민간외교의 구심점이 될 기구를 설립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새로운 외교전략 패러다임: 총력·복합외교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외교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외교에 있어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등 비정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한편, 환경·개발·과학기술·문화·금융 등 새로운 이슈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복잡화되고 있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 외교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금년도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연결·조직하는 네트워크 파워를 강화하고, 하드 파워와 함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국의 정부·국민·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변화된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하는 등 ‘총력·복합외교’라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합 외교 전략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 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이 선진 외교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는 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